

형상의 날

작가 스티브 대뉴저
삽화 린지 버카



떠오르는 태양의 첫 햇살이 크로노르무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크로노르무는 한껏 하품을 내지르며 몸을 풀고는, 깨어나는 세상의 경이를 감상하며 미소 지었다.

곧이어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탁 트인 햇대 입구의 아치 사이로 한 줌의 눈송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산 높은 곳에 자리한 보금자리에서 추위쯤이야 익숙하고 반가운 존재였다. 그렇게 크로노르무는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발걸음으로 난간까지 걸어갔다. 무한하게 쭉 뻗은 눈과 얼음의 평원이 그를 반겼다. 저 멀리 고룡쉼터 사원의 웅장한 대침탑이 어렴풋이 보였다. 마치 새로운 하루를 맞아 인사하듯, 크로노르무를 내려다보던 구름이 찢 갈라지고 태양의 빛줄기가 그의 청동색 비늘을 따스하게 어루만졌다.



용 노릇하기 좋은 날이네! 크로노르무가 속으로 말했다. 아침이면 꼭 하는 말버릇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즐거운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살짝 미묘한 불편함이라 해야 할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빛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서서히 커지더니, 또 다른 청동용이 되어 크로노르무의 뿔대로 다가왔다. 금세 절친한 친구임을 알아차린 크로노르무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지도르미, 좋은 아침! 아침 가져왔죠?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닐 테고.” 식사 생각을 했을 뿐인데 크로노르무의 텅 빈 배가 우르릉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우아한 청동용은 사뿐하게 난간에 착지한 뒤 유쾌하게 고개를 까딱이며 씩 웃었다. “아뇨. 당신 결정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취할 건가요?”

요동치던 배꼽시계가 한순간에 멎었다. 크로노르무의 미간이 좁아졌다. 부끄러움이 다분히 녹아 있는 기색이었다.

지도르미의 입이 떡 벌어졌다. “크로노르무! 형상의 날까지 채 보름도 안 남았잖아요! 아직도 필멸자 형상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시원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오죽하면 형상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니, *당연히* 떠오르긴 했지만 크로노르무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무시하면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속 평화가 찾아올 테니까. 소중한 몇 분 동안은 정말로 그랬다.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지.

크로노르무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길게 뻗은 목은 점점 내려가 포개진 발톱 위에 안착했다. “지도르미, 결정을 못 하겠어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마음이 정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는 거 있죠.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당장 저 스스로도 제 모습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모습을 결정하라니까
너무 막막한 거 있죠.”**

어떡하냐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 같나요?”

지도르미는 한숨을 내쉬고는 입가 모서리를 비틀어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
그렇다고 제가 대신 골라줄 수는 없잖아요. 제 형상의 날은 아직 몇 년이나 남았고요.”

이에 크로노르무가 기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냈다. 콧구멍에서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올라왔다. “지도르미는 이미 필멸자 형상을 정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제 선택을 논하려고 여기 햇대까지 날아온 게 아니에요, 크로노르무.”

“그러니까, 아무튼 정했던 얘기죠?”

지도르미는 항변하길 관뒀다. 이윽고 못 이기겠다는 듯 짧게 숨을 푹 내쉬었다.
“음, 네. 하지만.....”

“그럼 그렇지!” 크로노르무가 답답한 심경에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다. “당신이야
쉽게 결정했겠죠. 요청할 직책이나 갈 장소, 결속할 상대도 전부 정해놨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 지도르미가 소리를 내질렀다. 하지만 친구인 크로노르무의 큼직한
녹색 눈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눈물을 본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얼굴을 내밀어
크로노르무와 코를 비볐다. “자, 울지 말아요. 친애하는 크로노르무. 조바심 낼 거
없어요.”

어린 용이 훌쩍였다. “당장 저 스스로도 제 모습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모습을 결정하라니 너무 막막한 거 있죠.”

지도르미가 차분하게 타일렀다. “우리의 종주이신 시간의 지배자께서 어려운 결정을 직면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아요?”

크로노르무의 분위기를 돌려놓으려는 작전은 보기 좋게 성공했다. “다른 위상분들께 조언을 구하시겠죠.”

“그토록 현명하신 분도 조언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안 그래요?”

크로노르무가 단호하게 고개를 고덕었다. “맞아요, 누구보다 현명하신 분이죠.”

지도르미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니 그분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앞서 수많은 용이 형상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받았거든요. 분명 당신도 도와주실 거예요.”

크로노르무의 마음속에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다. 방향성을 정하니 기분이 풀렸다고 해야 할까. 크로노르무는 날개를 접어 멋진 친구 지도르미를 있는 힘껏 안아주었다.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근데 우선 아침부터 같이 들지 않을까요? 빈속으로 나누기엔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어!

크로노르무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하강을 시작했다. 용의 안식처의 드넓은 얼음 평원이 서서히 작아졌고, 무수한 바위 협곡과 반쯤 파묻힌 해골 언덕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내 청동 용제단을 에워싼 절벽의 하단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의 지배자 노즈도르무가 영면에 든 용들 사이에서 경계를 선다고 알려진 신성한 장소였다.

지면이 가까워질수록 크로노르무 내면의 의구심도 커졌다. 마지막 순간 그는 날개를 비틀어 하늘 높이 비상했다. 크로노르무는 탁 트인 제단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그냥 노즈도르무와의 만남을 내일로 미루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크로노르무가 속으로 생각했다. 청동용군단의 위상은 무척이나 바쁜 분이잖아. 다른 중요한 일이 정말 많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헛대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으려던 순간, 작년에 스승에게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

“시간의 모래는 많지만 귀중한 것이다. 한 톨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을 떠올린 크로노르무가 얼굴을 붉혔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청동용군단은 시간의 길을 살피는 관리인들이다. 한번 흘러가기 시작한 시간은 누가 바란다고 해서 멈추거나 느리게 가지 않는다는 걸 크로노르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형상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들 덧없는 꾸물거림이 될 터였다.

크로노르무는 날개를 펼쳐 바람의 흐름을 따라 지면에 착지했다. 제단 외곽에서 놀던 비룡과 새끼용들 중 그가 마음을 바꾸는 걸 목격한 이들도 더러 있었다. 힐끔거리는 시선과 킁거리는 웃음소리가 날아왔지만 크로노르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한 행세를 하면서 비룡과 새끼용들 사이를 지나쳤다. 현자가 된 것처럼 고개를 한 번 끄덕여 주었다. 막상 자기들도 형상의 날이 오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긴장하진 않을 텐데 뭐. 크로노르무는 확신이 있었다.

크로노르무는 구불구불한 통로를 지나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는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그대로 속에 품었다. 밑으로 뻗은 돌길은 점차 넓어지더니, 잘



조각된 계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계단 끝에 모래 계곡을 연상케 하는 계단이 나타났다. 끝자락까지 다 오른 크로노르무는 머금었던 숨을 내쉬고, 다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놀라울 정도로 따스한 공기가 들어왔다. 마법 오아시스의 황금빛 빛을 한껏 머금은 공기였다. 기후가 화창하고 온화했던 노스렌드의 과거 일부를 보존해둔 것만 같았다.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부일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는 시간의 지배자의 찬란하고 경이로우며, 실재적인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계단 한가운데에 노즈도르무가 홀로 앉아 있었다. 밑으로는 모래와 용의 뼈가 바다를 이룬 채 움직이고 있었다. 고요함. 사색. 시간의 길을 이루는 무한한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크로노르무가 경외심에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다가섰다. “노즈도르무 님, 무엇 하나만 여쭙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크로노르무. 이쪽으로 오거라.” 노즈도르무의 목소리에는 지혜로운 기운과 반기는 화색이 두루 담겨 있었다.

노즈도르무가 모래를 밟을 때마다 그 주위로 정교한 양식이 생겨났다. 어린 용은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다. 크로노르무는 이렇게 형성되는 모래의 무늬가 훌륭한 미술 작품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나 모래는 한없이 흩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그런데도 모래는 고유한 형태를 아주 자그마한 침탐까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 크로노르무는 자신보다 정체성이 확고해 보이는 모래에 일말의 샘솟는 시기를 느꼈다.

시간의 지배자를 마주하고 앉은 크로노르무는 실로 작아진 기분을 느꼈다. 오랜 세월 수없이 중대한 사건을 목격한 용군단의 지도자 앞에 있으니 어린 용으로서는



한 줌의 모래보다 작아진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다.

둘 사이에 평온한 시간이 이어졌다. 물론 어린 용이 먼저 분위기를 깨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게, 음. 노즈도르무 님, 곧 있으면 제 형상의 날이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요. 시간의 지배자이신 만큼 곧 일어날 일, 일어난 일, 다가올 미래까지 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전 아직 보잘것없는 어린 청동용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형상을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노즈도르무 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앞으로 제가 어떤 형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미래에서 이미 어떤 형상을 선택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뵈었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부정행위 같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 규칙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크로노르무.” 고대의 용이 엄하면서도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르셨습니까?”

“일단 숨 좀 쉬거라.”

크로노르무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이 민망한 감정이 기억 속에서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죄송해요.” 크로노르무가 나직하게 말했다.

노즈도르무의 목소리가 휘도는 모래처럼 흘러들어왔다. “세상이 미천하거나 보잘것없는 청동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형상의 날에 네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말해다오.”

“노즈도르무 님을 비롯한 위상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한 필멸자





종족의 형상을 취해 그들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이죠. 큰 유대감을 느끼는 종족일수록 그들이 우리 용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형상을 고르는 게 중요하죠. 비늘과 송곳니가 아닌 저 자신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노즈도르무가 큼직한 청동빛 머리를 고덕였다. 그리고 이어 서서히 눈을 깜빡이자, 형상 전체가 일렁이는 금빛 마법의 구름에 휘감겼다. 잠시 후 구름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원래 노즈도르무가 있던 자리에는 가공할 용의 형상이 아닌 갈색 수염을 기른 하이 엘프가 있었다.

엘프의 형상으로 변했음에도 시간의 지배자는 품위와 절제 있는 기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금지와 지혜가 느껴지는 고대의 왕 같았다. 몸을 두른 방어구는 청동색 비늘이 수놓아져 있었고, 오른쪽 어깨를 장식한 건갑은 끊임없이 흐르는 모래시계를 머금은 용의 머리 형상이었다.

크로노르무는 경악한 채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결한 형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엘프의 손짓에 발밑 모래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위상들은 이 아제로스에서 어린 종족들과 함께 살아갈 운명이란 것을 처음 깨달은 이후로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형상을 취했다. 필멸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믿음직한 현자로 보이고 싶으냐?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보이고 싶으냐? 거리감이 느껴지는 냉담한 인상을 주겠느냐? 아니면 따듯하고 관대한 인상을 심어주겠느냐?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란다. 형상은 용으로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야. 그러니 네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얘기를 해주진 않을 거다.”



크로노르무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대답이었다. 하지만 필멸자의 형상도, 용으로서의 자기 자신마저 모호하게 느껴졌기에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기 그지없었다.

“이 조언은 어떨까 싶구나.” 노즈도르무가 말을 이었다. “형상을 선택한 다른 용들을 찾아가 보려무나. 친구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이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상대하기 무서운 자도 만나보렴. 그들이 어떤 진실을 바탕으로 선택했는지 듣다 보면 네 길 또한 명료해질 테니까 말이다.”

“감사합니다, 노르도르무 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사실 크로노르무가 바랐던 쉬운 답변은 아니었지만, 좋은 답변이었다.

“모래가 길을 인도하기를, 어린 존재여.” 노즈도르무가 따스한 황금빛 빛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다시금 사색에 잠겼다.

크로노르무는 계단으로 물러나기를 잠시 멈추고 명상에 잠긴 시간의 지배자를 뵈히 바라보았다. 그는 필멸자의 형상을 유지한 채, 용일 때 모래에 남겼던 큼지막한 흔적에 앉아 있었다. 크로노르무의 시선에는 위상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든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모래를 채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어린 청동용은 하늘로 뛰어내려 높이 비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생각이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크로노르무는 빠르게 허공을 갈랐다. 용의 안식처의 싸늘한 지형이 뿌옇게 용천수를 내뿜는 땅과 녹빛 관목이 어우러진 동토로 변했고, 이내



풍경은 서쪽 하늘의 아득한 푸른 연무로 다시 변화했다. 빛은 점점 더 형체를 갖추면서 밝아지더니, 하늘 그 자체를 꿰뚫는 듯한 빛의 봉화로 변했다. 그는 푸른용군단의 보루, 콜다라를 감싼 높은 암반 지대의 절벽으로 날개를 펼럭였다.

어린 용은 높은 봉우리 위로 날아올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마력의 탑을 바라보았다. 공중을 부유하는 고리들이 비전 마력으로 이뤄진 두꺼운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실로 거대한 탑이었다. 크로노르무는 저 요새 안에 있다는 경이에 관해 들어본 적 있었다. 위상들이 티탄의 의지에 따라 고대의 유물을 하사받았다고 말이다. 덩치 큰 푸른용 무리가 구조물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다. 일체화된 움직임에서 훈련의 흔적이 보였다.

푸른용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크로노르무는 낮게 활공하여 키 큰 소나무가 듽성듬성 자란 산설원이 내려다보이는 돌출부에 착지했다. 공기는 보랏빛을 머금고 있었고, 비전 마력 특유의 우지직거리는 소리가 청동용의 귀를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비룡과 용들은 마력 화살을 만들어 용군단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마법 실력을 갈고닦고 있었다.

마력의 탑의 상단부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하늘빛 용 한 마리가 크로노르무의 시선을 끌었다. 푸른용은 왕과 같은 위엄을 뽐내며 토양에 발톱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부드럽게 착지했다.

“그대가 크로노르무인가 보군요.” 용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칼렉고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동용 역시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반가워요, 칼렉고스! 지도르미에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칼렉고스가 미소를 보냈다.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풍기는 존재였다. “말리고스 님은 푸른용군단이 끊임없이 정진하길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죠. 네, 친구를 돕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지도르미에게 듣기론 형상의 날과 관련해서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크로노르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어떤 필멸자의 형상을 취해야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좀처럼 갈피가 안 잡히네요. 그래서 노즈도르무 님께 여쭙보니 이미 결정을 내린 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칼렉고스, 당신은 어떤 형상을 택했나요?”

푸른용이 눈을 감고 작게 주문을 외웠다. 주위로 비전 마력이 휘몰아치면서 칼렉고스가 필멸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변신이 끝난 후, 크로노르무는 예의를 갖추 침묵을 지켰다.

“제 선택은 어때 보이나요?” 머리칼에 푸른빛이 감도는..... 엘프? 인간? 수수한 갈색 바지에 평범한 흰색 셔츠를 넣어 입고, 장화를 신은 칼렉고스가 말했다. 세밀한 변신 과정과 달리 결과물은 수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말 색다른 형상이네요!” 크로노르무가 활달한 목소리로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다.

칼렉고스가 키득거렸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린 친구. 예상과는 영 딴판이죠?”

청동용이 얼굴을 붉혔다. “아니 그제..... 당신들 푸른용은 마법에 조예가 깊은 걸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말리고스 님 본인의 화려한 필멸자 형상을 한두 번 본 기억이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장엄한 모습을 생각했다고요? 말해도 괜찮아요, 크로노르무. 정말로요.”



칼렉고스의 따뜻한 미소가 크로노르무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사실 다른 용군단 구성원과 대비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겁니다.”

크로노르무가 눈을 한 번 깜빡였다. 곧이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음.” 칼렉고스가 입을 열었다. “형상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위상들께서는 우리 용군단과 필멸자의 대표자이시니, 겉모습에 그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화려하고 품격있는 형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확실히 그렇지. 청동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용군단 동포들 상당수는 위상님들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지만, 전 필멸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걷는 걸 지향합니다. 그래서 필멸자 세계를 섞어 놓은 듯한 인간과 엘프의 혼혈 형상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용들의 세계와 저들 필멸자의 세계를 융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니까요. 필멸자가 봤을 때 용을 연상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친구, 동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이 녹아들어 있죠. 이게 제 마음과 정체성이 담긴 선택입니다, 크로노르무. 전 살가운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정말 타당하긴 하네. “푸른색 머리는 이유가 뭐죠?”

칼렉고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랑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크로노르무가 답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칼렉고스. 지도르미가 말해준 것 이상으로 상냥하신 분이었군요.”

혼혈 엘프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제안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크로노르무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첫 번째는 필멸자가 보기에 용의 이름은 다소 형식적인 감이 있다는 겁니다. 동료로서 필멸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아, 그 뭐라고 하더라? 맞아. 별명을 생각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지요. 필멸자 친구들은 저를 칼렉이라고 부릅니다.”

“정말요? 그거 괜찮네요. 생각해볼게요. 다른 제안은 또 뭔가요?”

칼렉고스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제가 드린 조언은 제 관점에서 드린 겁니다. 용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나 필멸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이 천차만별이란 얘기죠. 그 부분은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진 용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크로노르무는 칼렉고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자신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다른 용들 중, 칼렉고스와 최대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떠올려 보았다. 이름이 생각난 순간 크로노르무의 근심걱정 없는 표정이 순식간에 음울해졌다.

혼혈 엘프가 턱을 굽었다. “다음에 방문할 용을 정하셨나 보군요.”

청동용이 한숨을 내쉬었다. “네.”



검은 비늘의 용기병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크로노르무에게 다가왔다. 용기병이 귀에 거슬리는 으르렁 소리가 뒤섞인 낮은 어조로 말했다. “주인님께서 지금 보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오십시오.”

그야말로 있어선 안 될 장소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크로노르무는



힘겹게 마른침을 삼켰다. 근육질 체형에 두 발로 걷는 용기병은 용족 주인의 손에 창조된 하인으로, 충성심이 깊고 유능한 종족이었다. 하지만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동굴이라는 환경 탓일까, 어린 용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검은용기병의 안내를 받아 화산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면서 크로노르무의 두려움은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눈앞의 용기병은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에 다리 한쪽을 미세하게 끌고 있었다.

왜 주인이 치료해주지 않는 거지? 청동용은 호기심이 동했다. 두려움으로 인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유들마저 한없이 불길하게 다가왔다. 다리는 저는 용군단과 함께 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용암 웅덩이 근처에서 일하는 이들이나 광석이 한가득 실린 수레를 끄는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 하나 예외랄 것도 없이 과로에 지쳐 후줄근해 보였다. 이곳에서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다.

굴이 열리자 화로와 불타는 웅덩이로 흘러내리는 용암으로 밝혀진 넓은 방이 나타났다. 여러 용기병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거나 무예를 기르는 흑요석 비룡들의 대련 상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린 용들의 공격에 자비란 없었다. 크로노르무는 다친 하인들이 많은 이유를 깨달았다.

검은용군단은 고통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구나.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이건만, 크로노르무의 마음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차올랐다.

크로노르무는 안내인을 추월하지 않게끔 천천히 걸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굴을 지나 약간 기괴하게 변형된 용의 이빨 같은 뾰족한 바위를 지나자 동굴이 하나 나왔다. 동굴의 공기는 가면 갈수록 농밀하고 고약해졌다. 깊고 어두컴컴한 물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에 크로노르무는 도망치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억눌렀다.

괜찮아, 크로노르무. 다 같은 동족이잖아. 무서워할 이유 없어. 그러나 진심으로 믿는 것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동굴의 중심부에는 검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거대한 검은용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기세를 발산하고 있었다. 검은용은 가공할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다. 광택 나는 굵이진 뿔이 불빛을 반사했다. 이런 모습에 그녀의 밑에 있는 이들은 감히 직책을 소홀히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용기병은 청동용 손님을 이끌고 좁은 흑요석 길에 들어섰다. 뱀처럼 복잡한 길을 지날수록 검은용이 가까워졌다. 크로노르무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모두 느끼면서 가깝게 다가갔다.

“주인님. 알현을 청한 외부인을 데려왔습니다.” 하인 용기병이 무릎을 꿇었다. 어찌나 몸을 낮추는지 바닥 표면에 널브러지기 직전이었다. 검은용은 형형한 노란 눈으로 용기병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이내 세로로 짝 뺨은 동공은 크로노르무에게로 옮겨갔다.

청동용은 적당한 인사말을 찾다가 그만 말을 더듬었다. “아, 안녕하세요. 여군주님. 우선 감사하다는…….”

“너는 위상의 딸에게 그런 식으로 예우를 갖추더냐?” 굳세고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린 청동용은 낮게 무릎을 꿇고, 고개는 더욱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닉시아 여군주님.”

검은용이 흡족한 기색을 내비쳤다. “일어나 이름을 말하라.”



“저는 크로노르무라고 합니다. 청동용군단의 일원으로서 인사를 올리고, 시간의 지배자님의 안부를 전하러 왔습니다.” 크로노르무가 오닉시아의 명에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의 떨림은 더없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오닉시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시시콜콜한 아침이나 떨려고 먼 길을 오진 않았겠지. 어린 용아, 용건을 말하거라.”

크로노르무는 입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 들었다. “조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어린 용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진심인가?” 오닉시아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다만 순수한 흥미 때문인지, 그저 즐거움을 느꼈지 때문인지 어린 용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계속 말해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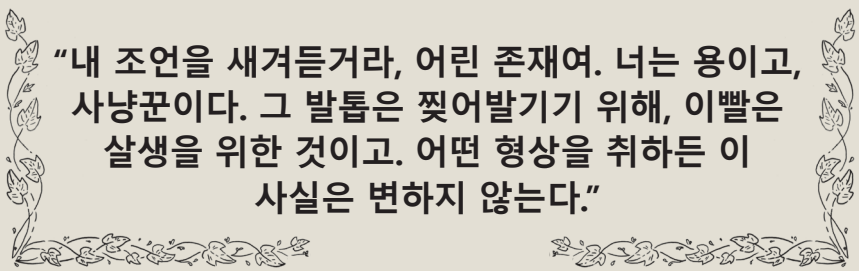
크로노르무가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경의와 재치를 담은 긴 설명을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리 오닉시아가 자애를 베푼다고 한들 필요 이상으로 이 음침한 동굴에 머물고 싶진 않았다. “저는 곧 형상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취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닉시아 님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보었습니다.”

검은용의 무응답에 한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질문과 함께 침묵이 깨졌다. “우리가 왜 형상을 선택하는지 아느냐?” 오닉시아가 물었다.

“필멸자 종족과 좀 더 수월하게 교류하기 위함입니다.” 청동용이 대답했다. “다가가기 쉬운 모습으로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죠.”

오닉시아가 콧방귀를 끼었다. 그리고 콧구멍에서는 검은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올랐다. “노즈도르무가 새끼용들에게 가르칠 법한 소리로군. 틀렸다, 어린 용아. 우리가 형상을 고르는 것은 필멸자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내 조언을 새겨듣거라, 어린 존재여. 너는 용이고, 사냥꾼이다. 그 발톱은 찢어발기기 위해, 이빨은 살생을 위한 것이고. 어떤 형상을 취하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거대한 검은용이 날개를 꺾 뺏어 뒷다리에 올렸다. 오닉시아의 몸 하나만으로 광활한 방이 가득 차는 것 같아 크로노르무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오닉시아는 잠시 자세를 유지하더니, 날개를 힘껏 끌어당겨 크로노르무가 있는 방향으로 재 구름을 날렸다. 청동용은 연신 기침을 내뿜으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검댕 때문에 눈이 따가울 지경이었다. 눈을 깜빡여 간신히 눈물을 뽀아내자, 오닉시아는 용의 모습이 아닌, 고급 로브를 걸친 철흑 같은 머리카락의 인간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많고 많은 필멸자 종족 중, 용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종족이 바로 인간이다.” 오닉시아가 말했다. “가장 강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 어떤 종족보다 집요하지. 그러나 영리한 머리와 달리 아침에 쉽게 흔들리는 허영심 많은 미물이기도 하니라. 나는 인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형상을 택했다. 내 조언을 새겨듣거라, 어린 존재여. 너는 용이고, 사냥꾼이니라. 그 발톱은 찢어발기기 위해, 이빨은 살생을 위한 것이다. 어떤 형상을 취하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네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형상 역시 원하는 바를 손에 넣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크로노르무는 폐부에 주먹이 꽂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라 말하면 좋을지 감이 안 잡혔다. “저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필멸자들에게 비치고 싶지 않아요.”



인간으로 변한 오닉시아의 입가에 희미하디 희미한 미소가 맺혔다. 그녀는 크로노르무에게 다가가 백옥 같은 손을 뻗어 목을 어루만졌다. 오닉시아가 부드럽고 나른하게 속삭였다. “본성을 바꿀 순 없단다, 어린 용아. 내 곁에 머무르면 필멸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마. 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 이상적인 형상을 고르면 네 용군단에서 가장 우수해질 수 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의 지배자도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야.”

오닉시아의 무자비한 말이 크로노르무의 뱃속에서 어지럽게 뒤틀렸다. 그 순간 어린 용은 오닉시아가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크로노르무는 오닉시아의 가증스러운 손길을 피해 한발 뒤로 물러났다.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닉시아 여군주님. 분에 넘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닉시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용의 위상에 어울리는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연구나. 진실을 받아들일 기개가 없으니. 그래, 평생을 그렇게 작고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해라. 필멸자와 친분을 다지면서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크로노르무는 안내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달려나갔다. 자신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제대로 외웠길 바랄 뿐이었다. 뒤쪽에서 메아리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는 검은 바위를 내달리는 크로노르무를 계속 뒤쫓았고, 마침내 동굴을 벗어나 서늘한 밤공기를 다시 들이쉴 수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멈췄다.

크로노르무는 갓 눈이 내려앉은 설원에 털썩 쓰러져 비늘에 묻은 검댕을



땀아냈다. 눈물이 차오르고 슬픔과 공포, 안도감이 터져 나왔다. 동굴 안에 있는 동안 용으로서의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군주 오닉시아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크로노르무는 배운 게 있었다.

“내 모습을 정했어.” 그가 크게 외쳤다. 비록 목소리는 떨렸지만, 크로노르무의 마음은 강인하고 굳건했다.



가만히 좀 있자. 왜 이렇게 꿈지락거려! 가만히 있자니까! 곧 의식이 시작된단 말이야!

크로노르무는 여러 생각과 감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뱃속에서 불안해하는 새끼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때가 됐다. 형상의 날이 온 것이다.

전통에 따라 의식은 고통심터 사원, 위상들이 모든 용군단을 굽어살피는 거대한 연회색 탑의 정상에서 열린다. 크로노르무는 용군단 소속이 소속인 만큼 노즈도르무가 참석할 거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용의 여왕 본인이 의식을 주관할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다.

알렉스트라자 님이, 내 형상의 날에 오신다니! 생각만 떠올렸을 뿐인데 뱃속의 새끼용들이 더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았다.

크로노르무는 참석한 이들을 살피보았다. 절친한 친구 지도르미는 이미 도착해 크로노르무의 긴장감을 가라앉혀주느라 진땀을 뻘 뒀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청동용군단이었다. 크로노르무가 평생을 알고 지낸 낯익은 얼굴이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각 용군단에서 파견한 사절들도 있었다. 붉은용, 녹색용, 푸른용까지. 심지어 여군주 오닉시아도 수행단을 대동하고 참석했는데, 다른 용들과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노즈도르무는 꼼짝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의식을 시행할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또 보네요, 크로노르무.”

너무 생각에 골몰했던 탓일까, 어린 청동용은 친숙한 푸른용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음에도 전혀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칼렉고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쁨과 안도감이 크로노르무를 뒤덮었다. 크로노르무는 행복에 겨워 칼렉고스를 힘껏 안아주었다. 전통적이진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용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빠지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그대의 선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선언이라. 크로노르무 본인이 기백 번도 되뇌었던 단어다. 형상 주문 구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용의 여왕을 포함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수를 저지를 것 같은 확신이 있었다. 크로노르무는 애써 웃음소리를 흘리며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억눌렀다.

“때가 되었다.” 노즈도르무가 짧고 간략하게 공표했다. 그의 목소리가 모여든 이들의 잡담 소리를 덮고 울려 퍼졌다.

용들이 탁 트인 방의 가장자리로 흩어졌다. 크로노르무는 중앙에서 시간의 지배자를 바라보고 섰다. 모두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어린 청동용은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공포에 삼켜졌다. *내가 뭐라고 말이라도 하길 기다리는 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에 반응하듯, 커다란 그림자가 저 하늘에서 은은하게 일렁이며 내려오던 녹색 빛을 천천히 가렸다. 용의 여왕이 기품 있게 하늘에서 내려와 노즈도르무의 곁에 섰다. 크로노르무는 멀찍이서 알렉스트라자를 본 경험은 많았다. 가까이에서 본 생명의 어머니는 진홍빛 비늘과 황금으로 장식된 커다란 뿔을 지녔지만, 동시에 온기와 연민을 발산하고 있었다. 어린 용에게는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다.

“앞으로 나오너라, 청동용군단의 크로노르무여.” 알렉스트라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마치 부드러운 노랫소리 같았다.

어린 용은 절제된 걸음으로 앞에 나왔다. 시원한 돌바닥이 발톱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크로노르무는 두 위상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다.

알렉스트라자는 몸을 숙여 크로노르무만이 들을 수 있게끔 부드럽게 속삭였다. “결정에 관해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다, 아이야. 네가 원한다면 의식을 좀 더 미뤄줄 수도 있단다.” 그녀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네게 좋은 것이 내가 바라는 바란다.”

크로노르무는 자신이 이렇게나 사랑과 이해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순간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준비됐습니다, 여왕님. 여왕님께서 의식을 주관해 주시면 평생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알렉스트라자가 고개를 끄덕인 후, 손님 모두를 향해 외쳤다. “우리 용들이 햇대에 앉아 아제로스 곳곳으로 뻗어나가던 어린 필멸자 종족들을 처음 본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저들의 마을이 도시로 성장하고, 도시는 왕국으로 발전하면서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저들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들



틈에서 자유로이 활보하고,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형상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명의 어머니가 등을 돌려 작은 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이 왔다, 청동용군단의 크로노르무여. 네 형상의 날을 맞이해 우리 중 형상을 택한 이들이 지금 그 모습을 취할 예정이다.”

그 말을 끝으로 알렉스트라자가 손짓했다. 여왕 본인을 포함한 수많은 참석자가 필멸자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알렉스트라자는 진홍빛 머리카락을 지닌 아름다운 하이 엘프가 되어 있었다. 특히 뽀은 황금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노즈도르무는 이전에 보았던 근엄한 엘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크로노르무가 주변을 둘러보자 미소 짓고 있는 인간과 나이트 엘프, 타우렌 등 여러 필멸자 종족이 보였다. 경이롭고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다.

여왕의 말이 크로노르무의 이목을 다시 끌었다. “때가 되었다, 크로노르무여. 동족을 마주하고 선언을 하거라.”

크로노르무는 마른침을 삼킨 뒤 고개를 숙여 알렉스트라자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 참석해준 이들에게 고개를 돌려 준비한 연설을 읊기 시작했다.

“소중한 친구들, 존경하는 동족 여러분, 평생 절 응원해주신 분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덕택에 시련을 극복했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었죠.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가 지도르미에게 멧쩍은 시선을 보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절 믿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크로노르무가 말을 더듬었다. 머릿속이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크로노르무의 시선이 노즈도르무에게로 향했다. 엄한 눈초리를 받을 줄 알았건만, 그저 자랑스러움만이 보였다. 이어서 알렉스트라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측은함이 어려 있을 줄 알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배려가 가득했다. 크로노르무는 용을 하나하나 살폈다. 이들 모두 눈빛에는 온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크로노르무는 연습했던 연설이 아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제게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어딘가 잘못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다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친구들,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크로노르무의 흔들림 없는 시선이 여군주 오닉시아의 시선과 허공에서 뒤얹혔다. “음, 친구는 아니더라도 가르침을 준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 선택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타인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란 걸 말이지요. 저는 영웅이나 정복자의 시선에서 아제로스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필멸자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가장 작지만 누구보다 긍정적인 존재로서 보고 싶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당연히 시간의 길의 법칙을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크로노르무가 노즈도르무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의 지배자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러니 선언을 하자면.....” 크로노르무가 눈을 감고 필멸자의 형상을 규정하는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청동용의 마법이 그 주위로 일렁이며 몸을 감싸더니,



반짝이는 구름 속에서 용의 형체가 사라졌다.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자, 두 위상과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 금빛 자수로 장식된 흰색 로브를 걸친 작은 노움 여성이 서 있었다.

“반가워요! 앞으로는 크로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모인 이들 모두가 환호를 보냈다. 용의 여왕이 작은 노움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만나서 반갑구나, 크로미.” 알렉스트라자가 말했다. “환영한다.”

지도르미가 먼저 다가와 소중한 친구를 안아주었다. 크로미의 작은 체구에 멍이 안 남도록 조심스럽게. 노즈도르무는 현명한 선택이라며 애기해 주었다. 다만 처음부터 이 결정을 내리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여군주 오닉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연회장을 떠나기 전에 어린 청동용에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크로미는 이를 인정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여전히 수수한 의복을 걸친 혼혈 엘프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칼렉은 크로미에게 다가와 절도 있게 고개를 숙였다. “그대는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었죠. 그런데 우리야말로 가르침을 받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크로미가 키득거렸다. “누구든 서로에게 배울 점은 있는 법이죠.”

푸른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노움의 형상을 택한 이유를 알 것 같군요.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로미가 미소를 지었다.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칼렉과 긴 포옹을 나누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루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다. 용들은 춤추고 잔치를 즐기면서



옛날 노래를 불렀고, 어린 청동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해진 기분으로, 유쾌한 기분으로 침소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의 첫 햇살이 크로미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그렇게 크로미는 한껏 하품을 내지르며 몸을 풀고는, 깨어나는 세상의 경이를 감상하며 미소 지었다.

